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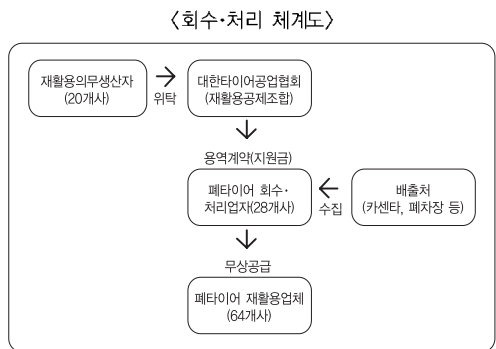
협회의 타이어 재활용공제사업

1]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운영

환경부는 91.2월 폐기물관리법의 제정과 아울러 생산자가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받는 예치금제도를 92.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우리 협회는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91.6월 페타이어 회수·처리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예치금제도상의 생산자는 예치금납부 등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재활용 확대를 통한 지원순환형 사회구축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는 새로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nvironment Producers Responsibility)를 도입, 03.1월부터 시행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하에서는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미이행시에는 폐기물의 실제 회수·처리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의무이행을 촉진토록 하여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우리협회는 03.2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협회내에 재활용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2] 페타이어 회수·처리 체계

협회는 전국에 페타이어 회수·처리업자 28개사를 지정하여 페타이어를 회수·처리하고 있으며, 페타이어 회수·처리업자는 수집한 페타이어중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재생타이어 원단 및 중고타이어로 판매하고, 재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협회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64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사업장까지 무상공급하고 있다. 이때 협회는 페타이어 회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페타이어 회수·처리비를 지원한다.



3] 공제조합원 및 재활용업체 현황

06년 12월 현재 우리협회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한 공제조합원은 제조업체 5개사, 수입업체 15개사로 총 20개사이다. 한편, 우리 협회와 페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는 시멘트업체 5개사 7개 공장 및 고무분말 가공 등 물질재활용업체 14개사를 포함하여 06.11월 현재 총 64개사이다.

(단위: 개사)

구 분	04년	05년	06년
제조업체	5	5	5
수입업체	12	13	15
계	17	18	20